

여야, 44시간

내년까지는 주46시간으로

국회노동위 노동관계법 개정소위는 24일 근로기준법 개정문제와 관련 현행 주48시간 노동제를 주44시간으로 줄이되, 오는 90년까지는 주46시간으로 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지금까지 야3당은 올해부터 44시간제로 하기로 했었고 민정당 쪽은 주46시간제를 고집해왔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산업재해 보상법 개정문제와 관련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도 현행보다 20~30% 인상키로 했다. 또 휴업급여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한국여성 일 가장 많이 한다

89.3.3

국제노동기구 한주 평균 54.1시간 노동

【네바=AFP 연합】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1주 평균 54.1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 세계 여성노동자들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1일 밝혔다.

또 한국 남성노동자도 주 평균 노동시간이 54시간으로 각국 노동자중 가장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스리랑카(51.5시간) 싱가포르(49.2시간) 페루(47.4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반면 노르웨이 여성 노동자는 주 평균 24.1시간, 남성 노동자는 24.7시간으로 각각 최소의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또 핀란드는 남녀전체 주 평균 노동시간이 32.2시간, 덴마크가 32.5시간, 프랑스 38.7시간,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가 38.8시간으로 평균 30시간대의 비교적 낮은 노동시간을 나타냈고 아일랜드(38.2시간)와 영국(38.4시간), 일본(38.7시간), 서독(39시간) 등은 여성노동자만이 40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 亞 日

88.12.7

여성취업 低賃 단순직 집중

Y M C A 토론회

「저렴한 저연령 저임금」단순직」이 여성취업의 일관된 특징이다. 이러한 여성취업의 불평등한 취업구조를 시정해보기 위해 남고공불평등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 Y M C A 여성위원회는 6일 서울 Y M C A 회관에서 「여성취업-불평등」을 주제로 여성취업의 불평등구조를 집중토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보완 필요

Y M C A 여성위원회가 발표한 「여성고용차별에 대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저조한 편이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87년 4년제대학을 졸업한 여성 5만7천명 중 취업한 사람은 1만5천명뿐인데 그나마 대부분 단순사무직에 취업했다.

여성취업의 현실은 또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낮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고졸이하의 한층 사무직은 정을 추구했고 盧武鉉의원(民主黨)은 「법에 기대를 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성의 학력과 취업의 관계 대하는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여자에 대해 제한적 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성 차별적 근로조건의 제시에 의해 여자의 모집 채용기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성고용차별 동원제한인데 여성고용촉진법의 실시 △

27. 차별적 근로조건의 제시에 대한 여자의 모집 채용기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성고용차별 동원제한인데 여성고용촉진법의 실시 △

서울시 노동자 근무시간 세계6위

88.10.12

스위스은행 조사 한해 2천2백48시간 노동

【홍콩=AFP 연합】 서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48시간으로서 세계 도시노동자 중 6번째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최근 스위스은행의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스위스 UBS은행이 세계 52개 주요도시의 12개업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지역 도시노동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며 특히

홍콩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6백27시간(주간 5.5일 기준으로 일평균 9.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이 최장노동도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별 순위를 보면 홍콩에 이어 이스탄불이 연간 2천6백22시간으로 2위, 마닐라가 2천2백97시간으로 3위, 칼라룸푸르가 2천2백94시간으로 4위 그리고 멕시코시티가 2천2백60시간으로 5위

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6위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콕, 싱가포르, 도쿄, 자카르타 등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10위권안에 든 반면 서유럽은 세계적인 노동천국으로 나타나 브뤼셀은 1천6백69시간으로 최단노동도시가 됐으며 오슬로와 뒤셀도르프가 뒤를 이었다.

기보다는 사회가 여성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년층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년층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년층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